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의 시작을 알리는 자비나눔 걷기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민통선 철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

# 통일 향한 희망의 걸음 내딛다

## 파주 임진각, '도담도담 캠페인' 자비나눔 걷기대회 현장

3월 29일 임진각 철조망 열리다

출입통제 구역임을 나타내는 철망문이 열렸다. 1천 여명의 행렬이 차분히 발을 옮겼다. 초소에 있던 군인들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이들을 배웅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뻗은 철조망 사이로 흙먼지가 일었다. 북한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여유롭게 그 길을 건너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자승)와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이 주관한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가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렸다. 영양결핍으로 힘들어하는 북한 아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도담도담은 어린이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순 우리말. 참가자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왕복 약 6km를 걸으며 행사에 동참했다.

북한의 만성 영양결핍 어린이는 10명 중 3명. 어린이 사망률은 남한의 7배에 달한다. 이날 걷기행사에 동참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었어도 내 아이, 내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북한 어린이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통일시대의 미래세대"도 강조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남북 어린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운 시일내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행복과 희망의 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재 파주시장도 축사에서 "그동안 파주시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는데

통로를 찾지 못했다"며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북한 어린이를 돕는 행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파주시에서도 조계종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현(파주 금향초 5년) 학생은 "안녕 친구야"로 시작하는 북녘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서울보다 가까운 곳임에도 갈 수 없는 아쉬움을 전하며 "조금씩 양보해 통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주위에 울림을 줬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소리도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줄지어 민통선 철책로를 따라 통일대교까지 걷기 시작했다.

'남북어린이 함께 키워요'라는 피켓을 든 무리사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발걸음은 제각각이었지만 남북 어린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다. 참가자들 얼굴에는 희망어린 웃음이 묻어났다.

6살, 11살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시환(40)씨는 "불교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큰 아이 추천으로 가족이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아이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뜻 깊은 경험으로 남게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머리가 희끗한 본명심(78) 보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분단 사실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그는 "통일이 꼭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진관사에서 온 법해 스님 역시 "걸으며 조금이나마 건강해질 북한 어린이들 생각해 통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며 "이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 사람들 마음에도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대교에 다다르자 갑자기 시야가 넓어졌다. 북한이 금방이라도 보일 듯 참가자들은 "갈 수 없는 땅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잠시 감상에 젖었다. 아이들 손에 들린 바람개비는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돌고 있었다. 자승 스님은 참가자들 손목에 단추를 직접 걸어주며 지나온 걸음과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했다.

1시간 후 출발지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서로 수고했다며 어깨를 다독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가자 1천 여명  
임진각서 통일대교 6km 걸으며  
북 어린이 위한 자비 마음 모아  
영양 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첫 걸음

북한 어린이도 우리 아이

중앙승가대 학생회장 덕성 스님은 "의미있는 자리에 학인 스님들 여러 명이 참석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걷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함께 어울리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걷기대회를 마치고 도담도담 캠페인에 후원 신청을 한 황민경(47)씨는 "북한 어린이도 우리 자식과 같다는 말을 듣고 크게 공감했다"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화가 한반도 전체에 퍼지길 기원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자승 스님이 어린이에게 단추를 손목에 걸어주고 있다.



우유와 알약, 주사기를 넣는 모금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모아진 후원금으로 영양식, 의약품 등을 구입,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원행(중앙승가대 총장), 보화(사회부장), 송목(포교부장), 원경(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스님 외에도 중앙승가대, 포교사단,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 등에서 참석했다.

평화의 종 울리며 캠페인 선포식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

어 진행됐다. 송목 스님과 원경 스님이 평화의 종을 울리며 캠페인 선포를 알린 후,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편지글 낭독 △모금 퍼포먼스 △불광사 합창단 공연이 이어진 후, 2부에서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늦은 3월, 파주의 봄은 아직 일렀지만 곳곳에는 연둣빛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봄을 데리고 북한을 마중나간 사람들의 걸음이 도담도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파주 임진각=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4월 16일 집행부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집행부 차원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4월 16일(수) 오후 2시 ~ 6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내 용 :

[1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2부] ① 준직선제 ② 완전 직선제

③ 선거인단 축소 ④ 선 추천 후 선출

[종합토론 및 결론]

■ 토론자 : 본사주지 1인, 종책 모임별 각 1인, 비구니 종회의원 1인

■ 사전 의견 접수처 (문서, 이메일)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걸봉투에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의견" 명시)

• 이메일 : ykkim@buddhism.or.kr / shyoun@buddhism.or.kr

[1안]  
4천명 규모에서 준  
직선제 시행

· 규모 : 3,795명  
· 내용 : 비구 대덕 이상(3,036명), 비구니는 비구 선거인단의 25% 배정(559명)

[2안]  
1만명 규모의  
완전 직선제 시행

· 규모 : 10,883명  
· 내용 : 비구, 비구니 전체 (비구 5,602명/ 비구니 5,281명)

[3안]  
선거인단 축소

· 규모 : 106명  
· 내용 : 교구본사 주지 25명 + 종회의원 81명

[4안]  
선 추천 후 선출 제도 시행

· 규모 : 약 1천명  
· 내용 : 선 추천 - 추천위원회 구성 / 후 선출 - 교구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총 1천명 규모의 선거인단 선출